국제정신분석협회(IPA)의 역사

국제정신분석협회의 기원과 발전

프로이트(Freud)는 짙은 향수를 느끼며 한 차례 이상 “영광의 고립(splendid isolation, 19세기 말 유럽대륙의 내부 대립에 대해 영국이 취한 고립정책)”의 10년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기간에 그는 정신분석을 발전시켰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1894년에 브로이어(Breuer)와의 협력 관계가 종지부를 찍었을 때부터 이 시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동료도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플리스(Fliess)에게 보낸 서한들이 발표된 이후로 두 사람이 매우 활발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편지 교류 속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운딩보드(아이디어, 결정 등에 대한 반응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로서 플리스를 활용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개념들 중 일부는 플리스 자신의 이론에 의해 자극 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두 사람은, 프로이트가 농담처럼 “회의(congress)”라고 칭한 많은 행사에서 만남을 가졌다. 어쩌면 이 단어가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는 전조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비엔나에 프로이트의 협력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플리스가 베를린 사람임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전적으로 홀로 연구에 매진한 것은 아닌 셈이었다.

1902년에 프로이트는 자신의 연구를 의논하기 위해 네 명의 남자들(슈테켈(Stekel), 아들러(Adler), 카하네(Kahane)와 라이틀러(Reitler))을 초대했다. 이 모임은 아마도 슈테켈이 주선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수요심리학회(Psychological Wednesday Society)를 결성하여 그날부터 매주 모임을 가졌다. 1908년에 회원은 14명이 되었으며, 그 명칭도 비엔나 정신분석학회(Vienna Psychoanalytical Society)로 바뀌었다. 그 해에 페렌치(Ferenczi)가 모임에 합류했다. 정식 회원 이외에 훗날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다른 몇몇 손님들도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중에 IPA 회장을 역임한 아이팅곤(Eitingon), 융(Jung), 아브라함(Abraham)과 존스(Jones)가 그들이었다.

IPA 영화(IPA Film)

역사적 장면들과 역사 인터뷰와 해설로 구성된 영화로 2010년에 리 제이피(Lee Jaffe)가 IPA를 위해 만들었다. 나딘 레빈슨(Nadine Levinson)이 제작을 맡았고 리오 랑겔(Leo Rangell)이 사회자 역할을 했다.

 1907년에 존스는 취리히에서 융을 방문했다. 존스는 프로이트의 작품에 아주 친숙했을 뿐 아니라 1906년 말부터 런던에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정신분석 기법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이트와 만남을 갖지 못한 터였다. 그런데 정신분석에 관한 공통 관심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동료들을 규합하려면 국제적 모임을 조직해야 한다고 융에게 제안한 당사자가 바로 존스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최종적으로 IPA를 탄생시킨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 어쩌면 존스일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는 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계획된 모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잘츠부르크를 선택했다. 존스는 모임 명칭을 “국제정신분석회의(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Congress)”로 정하길 바랐다. 그러나 융은 그 모임을 “프로이트 정신분석 제1차 회의(First Congress for Freudian Psychology)”로 칭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국제 협회로서의 면모를 채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오늘날에는 최초의 국제 심리분석 회의로 간주되고 있다.

1908년 4월 27일에 잘츠부르크에서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협회에 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중대한 결정은 차치하고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했던 일은 ‘쥐인간(Rat Man)’의 사례에 관한 프로이트의 발표였다. 이 사례는 프로이트를 설득하여 회의를 4시간 더 연장해야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회의는 1910년 3월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국제정신분석협회(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가 결성되었다. 프로이트는 잘츠부르크 회의 이전에 페렌치와 첫 만남을 가졌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급속도로 깊어졌다. 잘츠부르크 이후에 프로이트는 페렌치에게 일종의 약정 형태로 분석가들을 더 단단히 규합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페렌치는 뉘른베르크에서 이 제안을 했다. 그는 융이 새로운 협회의 회장을 맡아야 하며 취리히가 공식적인 협회 본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여러 모로 이 제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융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최소한 1년 동안 그는 융을 자신의 정신적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다. 정신분석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또한 대중의 머릿속에서 정신분석가들이 더 이상 비엔나와 동일시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유대인과 관련 있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스위스인이자 비유대인인 융이야말로 리더의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융이 IPA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은 협회 본사가 위치한 취리히에 거주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융과 그의 비서 리클린(Riklin)이 IPA의 업무를 처리했다. 1911년 6월에 아들러가 몇몇 다른 회원들과 함께 비엔나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여 개인심리학회(Individual Psychology)를 결성했다. 슈테켈은 학술지인 <젠트랄블라트 Zentralblatt> 운영을 위해 협회에 남았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불만을 야기했다고 생각했다. 결국 1912년 10월에 슈테켈도 비엔나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했다.

그 동안에 1911년 9월, 바이마르에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이 무렵 IPA 소속 회원은 10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회의에서 새로 창설된 미국 학회들--뉴욕학회와 미국 정신분석협회--이 인정받았다. <젠트랄블라트>도 IPA의 공식 기관지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1913년 1월에 프로이트가 창간하고 페렌치와 존스와 랑크(Rank)가 편집을 맡은 <국제정신분석지 Internationale Zeitschrift fur Psychoanalyse>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학술지는 1941년까지 꾸준히 발행되었다. 아울러 1912년에는 응용 정신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인 <이마고 Imago>가 출간되었다. 바이마르 회의에서 융은 회장으로 재선되었는데, 그 다음 회의는 1913년에 뮌헨에서 개최하기로 정해졌다.

그 즈음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과학적 의견과 개인적 성격에서 심한 충돌이 생긴 탓이었다. 급기야 1913년 말에 양자 합의로 그들의 관계도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IPA 회장직을 고수했으며, 1913년 9월에 열린 뮌헨 회의를 주관했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자 아브라함(Abraham)은 불만을 지닌 자들은 회장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기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2명 중 22명이 기권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융은 자신의 지위가 지지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1914년 4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7월에는 취리히 학회가 IPA에서 탈퇴했다. 그 결과 융과 정신분석을 이어주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프로이트는 1914년 9월에 예정된 다음 회의 때까지 아브라함이 임시 회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8월에 전쟁 발발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1918년 9월에 부다페스트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더 이상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거의 대부분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출신이었다. 그 외에 독일에서 세 명, 네덜란드에서 두 명, 폴란드에서 한 명이 참석했다. 국제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그런 회의였다. 페렌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쟁 패배 이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는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잠정적으로 존스에게 회장직으로 부탁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IPA 활동이 중단되었다. IPA의 창설 목적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정신분석가들 간에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학적 의견교환을 권장하는 국제 회의의 조직체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IPA는 다양한 학회 활동의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저런 형태의 회보를 발행하고 <인터나티오날레 차이트슈리프트 Internationale Zeitschrift>와 <이마고> 같은 과학 학술지들을 창립했다.

1912년에 아들러와 슈테켈이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탈퇴하고 융 역시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존스는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의 주요한 원리를 신봉하여 충분히 믿을 만한 동료들로 구성된 비밀 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의 초대 회장은 존스가 맡았는데, 1919년에 페렌치, 랑크, 삭스, 아브라함과 아이팅곤이 합류했다. 위원회의 각 회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견해를 논의하기 전에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 결과 뉘른베르크 회의에서 페렌치의 추천을 받은 그들이 호위병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창단 멤버들”로 제한되었으며 IPA 회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독단적으로 움직였다. 1912년 이래로 이러한 상황은 비밀 위원회와 융이 이끄는 IPA의 공식 활동 간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신분석으로부터 융의 일탈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존스는 위원회가 10년 동안 만족스러운 활동을 했다고 말한다. 그 기간에 위원회가 통합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IPA에서 자체적으로 “과두제(혹은 능력 사회)”로 묘사할 만한 전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중요한 역학을 했다.

1920년에는 수년에 걸쳐 랑크가 위원회의 다른 회원들과 불화를 일으켰다. 랑크는 위원회를 탈퇴했고, 1925년에 안나 프로이트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결국 1927년에 위원회는 해체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난 1920년에 헤이그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18년에 열린 부다페스트 회의에 견주어 보면 이번 회의는 훨씬 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떨어져 있던 동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62명의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학회와 스위스 학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존스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19년 1월에 프로이트가 국제 정신분석 출판사(The Internationaler Psychoanalytischer Verlag)라는 독립적인 출판사를 설립했다. 출판사 설립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정신분석 관련 출간물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부다페스트의 폰 프로인트(von Freund)가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터였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1920년 1월에 프로인트가 사망했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랑크는 출판사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 존스도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과 관련하여 부지런히 활동했다. 그는 국제 정신분석 도서관을 설립했으며, 1920년에 창간호를 발표한 <국제 정신분석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도 발간했다.

1922년에 베를린에서 제7차 회의가 열렸다. 그곳에서 격년제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존스가 회장으로 재선되었고 아브라함이 비서로 선정되었다. 동시에 회장과 비서과 반드시 동일 학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전례가 깨졌다.

1924년에 제1차 회의와 같은 장소인 잘츠부르크에서 다음 회의가 개최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차 회의에 참여한 회원은 고작 22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IPA 회원은 263명에 달했다. 바트홈부르크에 열린 그 다음 회의는 특히 중요한 회의였다. 아브라함이 그 회의를 주재했다. 그곳에서 국제 교육 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 및 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었다. 학회의 대표들이 초빙되었다. 페렌치가 의장을 맡았다. 아이팅곤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원칙들을 소개했다. 교육은 개인이 사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그 대신 여러 국가에서 연수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연수원은 전적으로 IPA에서 정한 교육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교육에는 “교육적 분석(instructional analysis)”과 감독 받는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심리분석을 시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 IPA 회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각의 지부에서는 7명 미만의 회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국제 교육위원회(나중에 ITC로 명칭 변경)를 결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IPA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정신분석 교육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처리한다. 아이팅곤이 교육위원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정되었다.

존스는 이 회의에서 비전문가(즉, 비의학적) 분석과 관련하여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사이에 중대한 쟁점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와 페렌치는 둘 다 교육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의학 교육 과정을 실제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인들은 미국 내에 수준 이하의 치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의학 학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존스와 아이팅곤은, 의학 교육을 권장하긴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ITC가 교육 승인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그 계획안이 작성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의결했다. 이 목적을 위해 아이팅곤이 임명한 위원회는 모두 베를린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최종 결정에 만족해하지 않는 지부들이 많았다. 그 다음 회의에서 진정 새로운 국제 위원회가 출범했다. 존스가 의장을 맡았다. 위원회 보고서는 1932년에 열린 비스바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수락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비전문가를 포함한 교육 지원자 선정 규정들을 개별 학회의 재량에 맡길 것을 권장했다.

아브라함이 바트홈부르크에서 IPA 회장으로 재선되었다(1925년).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두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아이팅곤이 그의 직무를 이어받았고 안나 프로이트가 비서로서 그를 대신했다.

인스부르크 회의(1927년)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팅곤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비밀 조직에서 탈피했다. 회장과 두 명의 부회장, 비서와 회계담당자로 구성된 협회 임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기구는 흔히 중앙집행부로 불렸다. 1929년에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서 벗어나 옥스퍼드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이팅곤은 협회가 아주 더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회원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고집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3년 후 비스바덴에서 또다시 아이팅곤이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회의가 연기된 것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던 독일의 국내 사정 때문이었다. 아이팅곤은 이제 7군데에 연수원이 생겼으며, 좀 더 최근에 생긴 연수원들은 베를린과 비엔나와 런던의 교육 운영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에 관한 새로운 소위원회에서는 교육 입회 및 교육에 관한 전권이 교육위원회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가 지원자들의 선정과 관련된 규정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교육위원회에 맡긴다. 하지만 그 규정들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어느 누구든 교육위원회에서 만족스런 수준의 교육을 마쳐야만 비로소 자격 있는 정신분석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비전문가 지원자들은 절대 상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환자를 상대하는 상담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은 최소한 3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년간 공인된 분석가에 의한 교육 분석 및 이론 연구 그리고 최소한 1년에 걸친 두 건의 “통제”(지도식) 분석이 포함된다. 관련 분야에서 비분석적 연구를 권장해야 한다. 비전문적 분석가들은 임상 정신의학과 생리학을 연구하고 경험해야 하며, 대학원 과정의 의학도들은 약물과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해야 한다. 외국 출신의 지원자들의 경우 자국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국 오늘날의 규정들은 대부분 50여 년 전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두드러진 진전이 있었다. 그러자 몇몇 유수한 유럽 분석가들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APA를 미국 연합학회(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 연합학회는 지부 활동의 조직과 감독을 관장하는 집행기구 같은 역할을 했다. 미국의 지부들이 추가로 IPA의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APA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APA 자체는 더 이상 지부로 활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APA 회장은 IPA 중앙집행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 세 번째 부회장이 되었다.

존스는 IPA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그는 5년 이상 이 직책을 고수했다). 그 동안 아이팅곤은 ITC를 계속 주재했다. 1934년에 루체른에서 제13차 회의가 열렸다. 세상을 떠난 IPA 창립자 페렌치에게 경의를 표하는 회의였다. 회의는 APA의 재조직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APA 정관을 서둘러 입안하여 중앙집행부에 제출하길 희망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관은, 1936년에 마리엔바드에서 열린 후속 회의에서 승인되어 비준을 받았다. 특히 미국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안들은 APA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특별한 지위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1938년에 파리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2차 대전 이전에 열린 마지막 회의였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존스는 비엔나 학회의 해체를 발표했다. 비엔나 학회에 남겨진 회원이 대여섯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APA에서 전해온 마지막 소식을 알렸다. APA는 IPA가 행정 및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중단하고 오직 과학적 목적을 위한 회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존스는 APA 집행부와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고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는 모임을 가진 듯했지만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인들과 함께 하는 모임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두어 명의 유수한 미국 분석가들과 영국 학회 소속의 몇몇 회원들이 메어스필드 가든스(런던)에서 모임을 가졌다. 존스는 1932년 이래로 IPA를 운영(글로버와 안나 프로이트의 도움을 받으면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국인들로부터 공격 받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조지 3세처럼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 아니라고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존스의 발표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 그 다음 회의가 열리자 사보이 호텔에서 좀 더 공식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1948년에 열린 그 모임에 미국에서 7명, 런던에서 6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곳에서 IPA 정관에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ITC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ITC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을 번갈아가며 회장직을 맡는다는 신사협정이 맺어졌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존스가 15년을 연임한 회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레오 바트메이어가 미국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존스는 영구 명예 회장이 되었다. 이번 회의는 1939년 프로이트 사망 이후에 열린 첫 번째 회의였다.

1956년은 프로이트 탄생 100주년이었다. 그 해에 존스의 강연 시리즈를 포함하여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진행되었다. 파리 회의에서 APA를 위한 새로운 조직 부문이 창설되었다. 지역 협회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지역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 미국 학회들도 APA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APA 회원인 미국 분석가들만이 IPA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1959년에 코펜하겐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는 1910년 이래로 어니스트 존스가 참석하지 않는 최초의 회의였다. 그는 1958년에 세상을 떠났다.

1951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카이브가 뉴욕 주에 설립되었다. 커트 에이슬러가 총무를 맡았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프로이트의 일대기 및 그의 과학적 관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여러 해 동안 아카이브에 관한 보고서들이 아이슬러나 그의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전해졌다. 가끔 아주 중요한 서한이나 다른 자료들의 기증을 알리기도 했다.

1967년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저서들의 표준판 완성이 주목을 받았다.

1971년 회의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이것은 정신분석의 출생지에서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뿐만 아니라 1938년 이후 안나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비엔나를 방문한 회의이기도 했다. 레오 레인젤 회장이 그녀에 대한 헌정으로 행사를 기념했다.

1973년에 열린 파리 회의에서는 리트보 보고서(Ritvo Report)와 관련하여 기나 긴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아동 분석을 위한 교육 및 완전한 성인 교육 없이 이런 교육을 받은 자들의 IPA 회원 자격에 관한 보고서였다.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는 회의에서 거부되었다. 이것은 현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성인들의 분석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들 만이 IPA 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1970년에 사망한 하인츠 하트만을 대신하여 안나 프로이트가 명예 회장직을 수여받았다. 그녀는 1973년부터 1982년에 사망할 때까지 명예 회장으로 남아 있었다.

1979년에 대서양 건너 뉴욕에서 최초로 IPA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IPA의 회원수가 대략 5천 명이며 점점 증가 추세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정신분석 연구를 위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연구소가 예루살렘에 설립되었으며, 그곳에 위치한 히브리대학교에 강좌가 생겼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비엔나의 베르가세(Berggasse) 19번지에 위치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게젤샤프트에 관한 발표도 있었다. 1968년에 설립된 이래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는 장서와 기록물을 수집하고 회보를 발행하며 박물관까지 갖추고 있다. 1971년에 열린 비엔나 회의에서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1980년대 이래로 라틴아메리카가 세 번째 지역으로 IPA에 속하게 되었다. 1991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아메리카 최초로 IPA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장직 역시 제3 지역인 라틴아메리카에서 선출되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호라시오 에체고옌(Horacio Etchegoyen)이 회장으로 활동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IPA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며 여러 회장들이 IPA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사람들, 특히 총무와 회계담당자들 그리고 지난 30년간 유지된 본부가 무엇보다도 IPA 활동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 기간 동안 협회의 회원수는 2009년 말에 12000명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더욱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세계 도처의 개발 집단들에 대한 지원과 조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IPA와 유럽정신분석연합 그리고 탈공산화 이후 국가들의 연구 집단들 사이에 협력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동유럽 정신분석연구서 창설을 이끌었다. 1997년에 유엔에 IPA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98년에 IPA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다.

1910년에 태동한 IPA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2010년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정신분석 회의가 열렸다. 이것은 아시아 내부 상황에서 정신분석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회의였다. 2010년은 IPA를 위해서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 정신분석의 100년 역사와 향후 100년의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IPA의 역사를 도표로 기록한 책도 출간되었는데, 정신분석 단체들을 물론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출판 담당자인 로다 바우데카(Rhoda Bawdekar)에게 연락하길 바란다.(rhoda@ipa.org.uk)

1982년에 나온 윌리엄 H. 길레스피(William H. Gillespie)의 글을 각색한 글이다.

주요 출처(Main Sources):

* Ernest Jones: Sigmund Freud, Life And Work
* Ernest Jones: Free AssociationsZeitschrift für Psychoanalyse
*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